

민주당이 혁신 공천 카드로 내세운 시민공천배심원제(시공제) 경선이 당원들의 표심을 이반하는가 하면 이미지 선거로 흐르는 양상을 보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공제의 핵심인 배심원들의 참여가 크게 낮아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5일 후로 다가온 광주시장 후보 경선(시공제 50% 반영)을 앞두고 보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민주당 서울 은평·충북 음성 배심원 경선 보니

- ① 겉보기 관정...언변 좋으면 우세
- ② 중앙배심원 비해 현지배심원 소수
- ③ 민심보단 당심 작용 현실로 드러나

시민배심원제 심각한 결함

나흘 남은 광주시장 경선 큰 걱정

5일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정치 신인인 김우영 예비 후보가 당원 여론조사 결과 10% 이상 뒤졌음에도 배심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신승을 거뒀다.

논란이 확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김 후보가 이미경 민주당 사무총장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음성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광범한 대결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고 박덕영 예비후보가 과반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공천장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지 투표' 현상이 투영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배심원들이 한 차례의 토론회를 보고 투표에 참여함에 따라 말을 잘하거나 감성적 접근에 나선 후보를 지지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사정과 예비 후보들의 정치적 성장 과정을 자세히 모르는 외부 배심원들은 이 같은 현상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배심원제는 불

과 200~400명의 배심원들이 한 차례의 토론회를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이라며 "지역을 발로 뛰고 민심을 가슴에 담은 후보보다는 토론회에서 이미지가 좋은 후보를 선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공제의 핵심인 배심원들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은평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전체 212명의 배심원 가운데 118명만이 참석하는데 그쳐, 55% 대의 참석률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특히, 시민 배심원의 출석률이 30%대에 그쳐, 지역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물론 외지인인 전문 배심원들의 선택이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지적이다.

음성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전체 배심원 200명 가운데 138명만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그쳐 시공제의 의미가 반감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시공제가 50% 반영되는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도 당원들의 표심에 이반하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중앙당이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전락공천 지역으로 선정, 배심원제를 밀어붙인 데다 전문배심원에 참여하는 단체들과의 정치협약식도 보안을 이유로 파기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시민배심원들의 참여가 낮을 경우, 탈락 후보들의 반발은 물론 배심원제 회의론과 이를 강력 추진한 민주당 지도부에 비난이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직박구리의 한가한 오후

광주 낮 최고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5일, 직박구리 한 마리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의 목련꽃에 앉아 한가로이 꽃잎을 따먹고 있다.

광주 낮 최고기온이 21도까지 오르는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5일, 직박구리 한 마리가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교정의 목련꽃에 앉아 한가로이 꽃잎을 따먹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이번엔 '광주공항' 난타전

토론회서 존폐 논란

강운태 "국제선 무안 이전 잘못"

이용섭 "무안공항이 광주공항"

정동채 "군비행장만 남길 건가"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문제'가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강운태·이용섭·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3명은 5일 광주방송 주최로 열린 TV토론회에서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공항 이전과 관련한 열띤 공방을 벌였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007년 무안공항 개항과 함께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으로 두 공항이 공멸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광주 공항의 존폐라는 민감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어서, 앞으로 선거와 민선 5기 출범 과정에서 어떻게 가다 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운태 후보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강 후보는 "이용섭 후보가 건교부장관 당시 광주공항 국제선 무안 이전을 주장한 것은 잘못된 정책판단이였다"면서 "무안공항은 처음부터 화물공항 중심으로 가야 했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도 "국

제선 이전 등으로 광주에 사실상 군사공항만 남겨 둔 현실에 대해 이 후보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998년부터 무안공항이 건설됐었고, 나는 2006년 건교부장관으로 취임했다"면서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도 이미 10년 전에 결정된 것이며,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정 후보는 이 후보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강 후보는 "대도시가 세계화를 추진하는 데 국제선 공항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이 후보를 또 한번 공격했다.

이에 이 후보는 "광주에서 무안공항 가는데 25~30분 소요된다. 무안공항이 우리 공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면서 "광주시장이 되면 무안공항 이름을 광주공항으로 바꾸고, 어디든 갈 수 있게 활성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 후보는 이날 토론회 이후 광주공항 활성화 정책으로 광주공항의 기능을 무안공항과 중복되지 않도록 국제선을 개발하고, 무안공항은 국제화 물터미널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문제에 대해 우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토론회를 거쳐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 광주 군 공항의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내달 프로축구 '광주FC' 법인 설립

광주시가 올 연말까지 시민이 주축이 된 프로 축구단을 창단하기로 했다.

5일 박광태 광주시장은 광범한 한국프로축구 연맹 회장, 김경남·이회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중으로 프로축구단 법인 설립을 마치고 프로축구 K-리그 16번째 구단으로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50억원 정도가 소요될 창단 비용 마련을 위해 우선 올해 예산 2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0여원은 시민주 공모와 기업 후원 등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관련 기사 19면>

시민주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개최되는 6월부터 공모하며, 주당 가격은 5천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민프로축구단

(가칭 광주FC)는 대전 시티즌과 대구 FC와 인천 유나이티드, 경남 FC, 강원FC에 이어 6번째 시·도민구단으로 출발하게 됐다.

박 시장은 "광주는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하고 새로운 야구장과 관광 레저타운 조성을 추진하는 등 스포츠와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주 연고의 프로축구단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를 달성한 이후 꾸준한 창단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시즌까지 광주를 연고로 활약하는 상무는 광주FC의 출범과 함께 프로축구 창단을 희망하는 제3의 도시로 옮겨갈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당신은 지금, 세상을 읽고 있습니다 <신문의 날> 표어

내일 제54회 '신문의 날' 휴간...인터넷 광주일보 서비스는 계속됩니다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커뮤티던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지)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광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가스타·세기보청기

1388-8489-888-322-9108